

안정적인 노후생활 구축 '시급'

65세로 정년 연장... 중위험·중수익 상품 수요 커져 복지·연금수령 기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 고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나이(가동 연한)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늘었다기보다는 노인 범위 속으로 이어지면서 복지와 연금 수령 기한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자금 마련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부부가 한 수형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전일 판결했다.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89년 만 55세이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법적 정년(현행 60세)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은 물론 금융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보험쪽을 보면 자동차보험, 화

재보험 등 배상책임 상품의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 정년이 늘면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워진 노동 정년에 맞게 전반적인 국민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 시장 전반의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퇴직연금 연령이 높아지면 퇴직연금 수령 개시 시점도 현행 55세에서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자산 운용을 더 장기의 시계에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고객들이 저위험·저수익 자산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용을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중위험·중수익 투자 대상에 관심을 높이며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더욱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

박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대법원 결정으로 약 5년간 더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수, 정년 보장 시기 등도 더 늘어날지는 힘든

상황이다"며 "이 때문에 마련된 공백으로 향후 가계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에서 예적금, 부동산 등의 비중을 줄이고 중위험·중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이런 수요에 맞춰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더 다양하게 내놓아야 한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금융투자업계에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간 2~3% 수익의 채권형 금융상품 등에서 만족했다면 이제는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추세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관련 금융 상품 개발과 함께 PB 및 WM 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은행 예적금에서 점점 비은행 금융상품으로 자금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더 나아가 위험자산인 주식, 즉 기업에 대한 배당 요구가 커지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대법원 결정으로 개인들이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이용할 여지가 커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노동 정년 연장으로 언뜻 더 일할 수 있게 될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주된 직업에서 퇴직하는 시기가 51세인 현실을 비춰보면 오히려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및 복지혜택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배경이다.

강창희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복지나 각종 연금의 혜택을 받는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자산을 더욱 늘릴 필요가 커졌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의 자산운용 단계는 퇴직하기 전까지 축적하는 1단계,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일부 자산을 꺼내 쓰며 운용하는 2단계, 죽을 때까지 꺼내 쓰기만 하는 3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이러한 개인 생애 주기에 맞춰 자산관리 컨설팅을 하기 보다 돈을 불리는 것만 강조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2단계 자산운용 시기에 인생 이모작을 할 직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금융사들이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금융사들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게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뉴스



NH농협은행에서 육성하고 있는 'NH Best Banker'에 도내 직원 7명이 선정됐다.

어려운 환경 속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

전북농협, 'NH BEST BANKER' 7명 배출 마케팅·고객자산관리 등 능력 인정 받아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NH농협은행에서 육성하고 있는 'NH Best Banker'에 도내 직원 7명이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NH Best Banker'는 농협은행 영업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펀드, 외환, 신탁, 여신 등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시장을 하는 제도로 우수 직원 선발 및 격려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확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연간평가에 선정된 전북지역 'NH Best Banker'는 최우수상에 전북혁신도시 정봉수 계장, 전주 송천센터 신대현 계장, 사업1위 함열지점 황성근 과장, 우수상에 정읍시 박해민 계장, 삼천동 이지

연 과장, 남원시 김건희 계장, 김제시청 조성운 계장이다. 선정된 우수 직원들은 마케팅 능력은 물론, 어려운 금융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한 자기개발 및 고객자산관리 등으로 급변하는 금융권의 환경변화에도 최적합한 인재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고객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신뢰가 농협은행의 핵심 경쟁력이며 'NH Best Banker' 우수 직원들이 누구보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전문가로서도 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랑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전국 조합장선거 공명선거추진 캠페인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2일 고창군 관내 고창농협 하나로마트에서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를 위해 시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행사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농협 고창군지부, 고창농협,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농협 하나로 마트를 찾은 조합원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유권자의 깨끗한 한 표의 힘은 지역농업발전과 우리 농협 발전의 힘임을 홍보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올해로 제2회를 맞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되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랑받는 농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난해 어업 생산량·생산액 역대 최대

연·근해, 원양어업 호조 나타내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해와 해외 수역에서의 원양 어업 생산량 호조로 어업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해 어업 생산량은 379만1000t(톤)으로 1년 전(372만150t)보다 1.8%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의 수역을 조업 구역으로 하는 원양 어업 생산량이 49만3000t으로 1년 전(44만6000t)보다 10.6% 늘어났다.

태평양 해역 어정이 인근 수역으로 확대돼 가다랑어, 꽂치,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의 조업이 호조를 보인 덕이다. 지난해 가다랑어 어획량은 26만7000t으로 원양 어업 품종 중 가장 많았다.

연·근해(일반해면) 어업 생산량도 전년(92만7000t) 대비 9.2% 증가한 101만3000t이었다. 대형선망 어업의 휴어가 확대로 고등어류, 전갱이류의 자원량이 늘어 조업이 확대됐다.

참조기의 경우 금어기가 설정, 어장 환경이 개선됐으며 바지락 폐사량도 줄었다. 주요 품종 중에선 고등어류(21만6000t), 멸치(18만9000t) 등의 어획량이 많았다.

총생산량 225만1000t으로 가장 큰 비중(59.4%)을 차지하고 있는 천해양식 어업은 1년 전(231만6000t)보다 2.8% 감소했다. 안정성 문제로 납치류 소비가 줄고 식용 미역의 과다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태풍, 고수온 등 영향에 시설 면적이 줄고 양식 환경 악화로 굴류와 홍합류의 양식 물량도 축소됐다.

품종별로 보면 다시마류(57만3000t), 김류(56만8000t), 미역류(51만6000t), 굴류(30만3000t) 등 순으로 높았다. 하천, 호수, 저수지, 댐 등 내수면에서의 어업 생산량도 전년(3만16000t) 대비 2.9% 감소한 3만5000t을 기록했다. 내수면 어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뱀장어의 치어 채포가 부진했고 이에 판매금액이 늘어 소비도 축소됐다. 열분수 유입으로 재첩류 폐사량이 늘어난 영향도 더해졌다.

시·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라남도(184만2000t·전체의 55.9%)에서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해냈다. 그 뒤를 경상남도(59만t), 부산광역시(32만8000t), 충청남도(14만6000t) 등이 이었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부산(28만5000t)에서 가장 많았고 천해양식 어업 생산량은 전남(167만7000t)에서 가장 높았다.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생산된 수산농식품을 판매했거나 판매 평가가격으로 환산한 총액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지난해 어업 생산금액은 1년 전(8조5669억원)보다 0.9% 오른 8조6420억원이다.

연·근해 어업(3.0%), 원양 어업(2.6%), 내수면 어업(0.5%)에서 모두 올랐지만 천해 양식어업에서만 2.7% 감소했다. 주요 품목인 굴류, 홍합류, 미역류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납치류, 흰다리새우, 전복류 등의 판매가격이 하락한 이유에서다.

이번 통계는 잠정치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확정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

전북농협, 농·축협 준법점검 담당자 집합교육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2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관내 농·축협 준법점검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공명한 선거 구현을 위한 준법점검 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올해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있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한 윤리경영교육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등을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올해 실시되는 유일한 전국 단위의 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농·축협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금지 등 복부 규정 준수와 법규준수로 성공적인 동시 조합장 선거를 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